뻔뻔함의 극치 유벤투스 아시아시장 진출 노린다

이쯤 되면 '뻔뻔함'이라는 표현을 잊은 듯하다.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을 자처해온 유벤투스 얘기다.

지난달 한국에서 최악의 결례를 범한 유벤투스가 '아시아 시장 진출'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2일(한국시간) 유벤투스 조르지오 리치 최고운영책임자(COO)의 말을 빌려 "유벤투스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세리에A에 킥오프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아시아 팬들이 낮 시간대 세리에A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불과 한 달여 전의 무례함을 전부 잊은 듯한 태도다. 유벤투스는 지난달 26일 팀 K리그와 친선경기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탈리아 최고의 명문 구단이자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를 보유한 유벤투스의 방한 소식은 국내 팬들을 설레게 했다. 그러나 유벤투스의 내한은 역대 최악이라는 비난 속에서 마무리됐다. 경험 없는 주최사 더 페스타와 한국프로축구연맹, 유벤투스의 불협화음 속에서 선수단은 예정 킥오프 시각보다 늦게 입장했고, 45분 이상 출전이 보장됐다던 호날두는 1초도 뛰지 않았다. 그밖에 파벨 네드베드 부회장이 킥오프 연기를 요구하는 등 황당한 뒷이야기로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BBC는 "유벤투스가 시간 조정을 밝힌 이유는 인기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를 따라잡기 위함이다. 아시아 중계권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으나 아시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한국에서 기본을 지키지 않은 유벤투스의 행보를 반길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3번의 타이밍 승부…교체선수 투입 '가성비 갑' 구단과 선수는?

3경기서 4골!…배기종 '최고의 조커'

'호화 교체멤버' 전북, 10명이 골 맛
8골 울산·7골 강원도 교체효과 톡톡
배기종 4골·김지현 3골 개인 1·2위

축구는 기본적으로 팀당 11명의 선수가 경쟁하는 종목이다. 물론 이들이 전부는 아니다. 언제든 3장의 교체 카드를 쓸 수 있다. 교체의 가치는 타이밍에 있다. 뒤진 팀은 극적인 반전을 위해, 또 앞선 팀은 마무리를 위해 최상의 카드를 최적의 시간에 꺼내야한다. 이는 감독의 승부수이자 능력의 잣대다. 그렇다면 2019시즌 K리그1(1부 리그) 12팀 중 교체 카드로 가장 재미를 본 구단은 어디일까.

교체 선수가 득점에 성공한 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북 현대가 가장 돋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전북은 26라운드를 마친 현재 77번의 교체 중 총 10명이 득점에 성공했다. 이동국(2회)을 비롯해 로페즈, 이비니, 호사, 김승대, 문선민, 이승기, 임선영, 한승규(이상 1회) 등 쟁쟁한 멤버들이 교체 투입돼 신바람을 냈다. 이들 중 호사는 2골을 넣어 교체 득점은 총 11골이다. 이는 전북이 올 시즌 기록한 총 득점(56)의 20%에 해당된다. 또 전북은 교체 멤버가 골을 넣은 경기에서 8승1무1패를 기록했다.

울산 현대가 8회로 뒤를 이었다. 김보경, 김인성, 주니오(이상 2회), 이근호, 주민규(이상 1회) 등이 득점에 성공했다. 특히 울산은 이들이 골을 넣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8승)해 교체 효과를 톡톡히 봤다. 강원FC가 7회, 경남FC과 FC서울이 나란히 6회씩을 기록했다.

가장 성공한 조커는 강원 김지현(23)과 경남 주장 배기종(36)이다. 이들은 교체 투입된 3경기에서 득점(김지현 3골, 배기종 4골)에 성공했다.

강원 김지현

교체 선수 득점 경기
(26라운드 현재)

구단	횟수
전북	10
울산	8
강원	7
경남	6
서울	6
성남	4
수원	4
상주	3
대구	2
제주	2
포항	2
인천	0

김지현은 강원 돌풍의 핵이다. '병수볼'로 불리는 강원은 특히 뒷심이 강한데, 그 중심에 김지현이 있다. 3라운드 전북전(3월17일) 결승골(1-0 승)을 비롯해 8라운드 제주전(4월21일) 추가골, 12라운드 성남전(5월19일) 결승골(2-1 승) 등을 기록했다. 김지현은 올 시즌 8골1도움으로 유력한 영플레이어상 후보다.

배기종도 후반전의 사나이다. 4라운드(3월30일) 대구와 홈경기에서 후반에 투입돼 2골을 폭발시켜 승리(2-1)를 따낸 그는 5라운드 전북전(4월2일)과 8라운드 수원전(4월20일)에서 각각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하며 팀을 구했다. 하지만 팀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2위에 올랐던 경남은 현재 10위에 머물러 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경남 배기종

29년 만의 '평양원정'…붉은악마가 평양 땅 밟으려면

남장현의 피버피치

2022카타르월드컵을 향한 한국축구의 긴 여정이 다음달 막을 올린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9월10일(한국시간)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시아 2차 예선 원정 1차전을 시작으로 장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현재 최대 관심사는 10월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예정된 북한과 원정 3차전이다. 이 경기는 1990년 평양 능라도에서 펼쳐진 남북통일축구대회 이후 29년 만에 북한 심장부에서 진행될 스포츠 빅 이벤트이다.

그러나 양측의 특수한 관계로 여느 원정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실무자 입장의 대한축구협회·북한축구협회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와 청와대까지 남다른 관심을 갖고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하나부터 백까지 협의를 거쳐야 하나 그 중 핵심 안건은 방북 규모다. 태극전사들과 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 등 순수 선수단을 제외해도 취재진·응원단의 평양 입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응원단 없이 선수단만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룰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대표팀 공식응원단(붉은악마) 수백 명의 방북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홀로 희망하고 원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북한의 태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전례도 있다. 2010남아공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과 최종 예선에서 남북이 마주쳤는데, 당시 북한은 "평양에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할 수 없다. 응원단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중립경기(중국 상하이)를 진행했다.

더욱이 인조 그라운드로 조성된 김일성경기장은 북한축구의 성지다. 10만 홈 관중 앞에서 자칫 한국에 패하기라도 하면 북한의 타격은 배가 된다. "평양 원정은 우리 대표팀이 현지 도착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배경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잔뜩 경색됐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10월 평양 원정, 내년 6월4일 홈경기를 통해 축구가 지금의 불편한 기류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대한축구협회는 북한과의 공동개최도 염두에 두며 2023여자월드컵 유치를 신청했다.

다만 지나친 정치적 개입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응원단 방북이 승인되더라도 태극기가 아닌 생뚱맞은 한반도기의 등장, 순수 축구 팬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잔뜩 평양에 입성하는 장면은 모두 원치 않는 그림이다. 축구는 축구로 남아야 한다.

yoshike3@donga.com